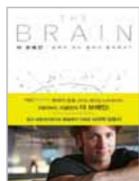


경험은 당신의 뇌를 끊임없이 바꾼다

더 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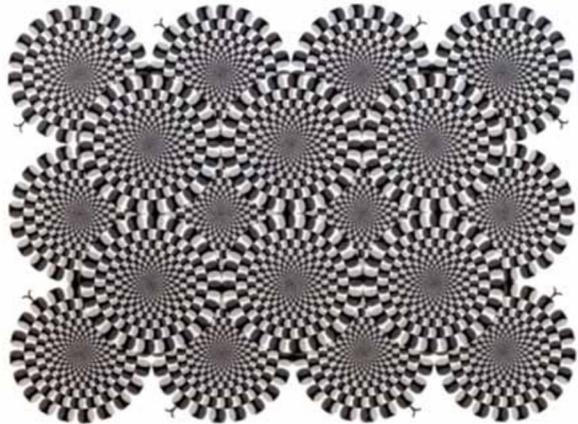
—샐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

데이비드 이글먼 지음, 전대호 옮김



1100명이 넘는 미국의 수녀, 신부, 수사들은 '수도회 연구'로 명명된 연구에 참여해왔다. 뇌의 노화가 불러오는 결과들을 탐구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1994년부터 시카고 러시 대학 연구팀은 350개 뇌를 조사해왔다. 심리·인지 평가, 의학적·신체적·유전자적 검사를 망라한 연구다.

그 결과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과 인지 능력 쇠퇴 사이에 명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뇌 조직이 폐허투성이가 됐더라도 당시지가 반드시 인지적 문제들을 겪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심리적, 경험적 요인들이 피험자의 인지 능력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 발견했다. 십자말 풀이, 독서, 운전, 책 읽기 등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키는 활동들은 인지 능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컸다. 신경 조직은 병들어 일부 조직이 퇴화했지만 다른 구역들이 퇴화한 기능을 보충하거나 넘겨받는 '인지 유지력'을 개발해 나간 것이다. 수녀들의 뇌는 우리가 뇌를 보호하고



무엇이 보이나요? '실재'에 대한 우리의 자각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 뇌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더 큰 관련이 있다. 이 그림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지만 그림을 보는 당신은 '운동'을 지각한다. 기타오카 아키요시가 고안한 회전하는 뱀의 환상. <해나무 제공>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어떻게 삶이 우리의 뇌를 만들고, 어떻게 뇌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가?' 수수께끼같은 뇌의 비밀을 풀어주는 '뇌과학 입문서'가 나왔다. 데이비드 이글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 부교수가 쓴 '더 브레인-살아있는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는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뇌과학을 다룬 전철한

안내서다. 책은 지난 2015년 미국 PBS와 영국 BBC를 통해 방영된 6부작 TV 프로그램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을 토대로 쓰였다. 방영 당시 이 프로그램은 '네이처' 선정 '2015년 최고의 TV쇼'로 선정됐고 2016년 에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저자는 "뇌는 우리 두개골 속에 있으며 계산 능력을 지닌 이상한 물질로 우

리가 세계를 파악할 때 의지하는 시각 장치이자, 우리의 결정들이 발생하는 장소, 상상이 제작되는 바탕"이며 "그 작은 뇌의 회로 안에 우리 중의 역사와 미래가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책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종되는지, 왜 우리는 타인들을 필요로 하는지, 인류는 어디로 나아가는지 질문들 던지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각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자는 극한 스포츠, 감각 박탈, 뇌분할 수술, 인공지능 로봇, 사체 냉각 보존 등 다양한 소재를 적극 끌어들이 논리를 펼친다. 또 하이데거, 라이프니츠, 장자 등 철학자들의 주장과 프로파간다, 대량학살, 사이코패스 등 사회학적 시선도 놓치지 않는다.

저자는 "당신의 뇌는 유일무이하다"고 말한다. "당신의 모든 경험 감각은 당신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 당신이 태어난 가정, 당신의 문화, 친구들, 직업, 관련한 영화, 누군가와 나눈 대화, 이 모든 것이 신경계에 흔적을 남기고 이 지워지지 않는 미시적 각인들이 모여서 당신을 만들고 미래의 당신을 제약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방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책이라 풍부한 사례와 실험 등 대중적인 눈높이로 써내려가 재미있게 읽힌다. '나는 누구일까?',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각 장의 제목부터도 흥미롭다.

<해나무·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대위의 딸=가장 위험한 시인의 가장 위험한 정치소설! 푸시킨의 역사적 통찰과 낙관이 빛낸 혁명과 사랑의 유쾌한 변주! 어수룩했던 주인공의 성장, 비범한 인물과의 기이한 인연, 아름답고도 애절한 사랑, 동료였지만 원수가 된 라이벌, 정의와 불의의 싸움, 잊혀져버린 전계,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대사와 장면 등등 읽는 이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새움·1만2800원>

▲포퓰리즘의 세계화=브렉시트, 유럽 극우정당, 미국의 트럼프와 샌더스까지 포퓰리스트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열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동시다발 폭발로 이어지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경기 대침체와 함께 포퓰리즘 폭발을 마주하고 있다. 엘리트의 명분론과 계몽주의(또는 기독교의 함의)를 부수버렸다는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 대응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았을까? <메디치·1만5000원>

▲위험도시를 살다=우리의 도시는 위험하다. 주변에 105개의 핵 발전소를 끼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에 기반해 작동하는 산업 및 도시체제를 지닌 동아시아의 도시들은 이제 후쿠시마의 망령에서 그 어느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산,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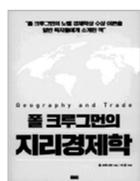
경주, 광주 등 대도시권에 인접해 핵 발전소가 밀집한 한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이라는 위험에 기대 살아가는 동아시아의 도회살이를 파헤친다. <알트·2만2000원>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총체적 저작! 삶과 죽음을 거듭하는 민주주의의 전 역사를 담은 장대한 파노라마! 저자인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존 킨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이상과 제도가 서구의 전 통치라는 통설에 맞서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부터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아프리카,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역사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재구성한다. <교양인·3만9000원>

특정 지역엔 특정 산업만... '경제지리'의 원리

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

폴 크루그먼 지음, 이윤 옮김



폴 크루그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 나왔다. '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역의 패턴과 경제활동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한다. 크루그먼은 재화와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전제하며 정부 당국의 일정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신케인즈주의자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를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이라고 지칭한다.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일들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라는 것이다. 일명 '공간에서의 생산 입지'다. 서구에서 지리경제학은 기존의 국제 경제학과 경쟁하는 새로운 무역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경제학에 공간을 도입하고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송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책은 클러스터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

해 기업 집단 입주자인 공단이 형성됐다. 클러스터는 업체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적다. 공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저자는 도시 또는 도시의 작은 클러스터와 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집중현상에 주목한다.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이 집중하는 지역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 책은 경제활동의 입지가 결정되는 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책을 번역한 인천대 무역학부 이윤 교수는 "한국에서 생산의 입지와 관련해 만병통치약처럼 처방되면서도 정확한 의미와 요인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최적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평한다. <창해·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새끼 표범=일제강점기 말, 조선의 험준한 바위산을 누비는 날카로운 눈, 굽적한 다리, 아름다운 매화 무늬를 가진 표범들이 있다. 어느 날, 새끼 표범 한 마리가 인간이 놓은 덫에 빠져 동물원으로 끌려간다. 새끼 표범은 어미와 바위산을 가슴에 묻고, 달리고 싶은 본능도,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열망도 꺾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군인과 경찰들이 오고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맹수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동물원을 가득 메운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수상한 식당=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생활공간이자 따뜻하고 즐거워야 할 곳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유쾌하게 꼬집는 책이다. 요리를 배우러 간 식당은 어느새 수상한 장소가 되고, 이제 막 사춘기를 맞이한 열세 살 아이들은 지켜야 할 것과 밝혀야 할 것 사이에서 고민한다. 이 책은 눈앞의 이익에 빠져 본질을 잊은 어른들을 향한 아이들의 날카로운 외침이자 '양심'과 '정



직'의 가치를 되새겨 보게 하는 작품이다. <북민도·1만1000원>

▲스마트폰에 갇혔어!= 밤낮으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던 카밀로! 학교에 가는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야 하는 한밤중에도 스마트폰에 갇혀서 도통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던 카밀로가 완전히 변했다.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갇힌 카밀로를 구하기로 마음먹는데... 과연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갇힌 카밀로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노란상상·9500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아니라 맛의향연이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에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세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